

검은 기름괴물과 태안의 기적

개발자	강경래(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의 아픈 기억인 2007년 유류피해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풀어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교보재를 통해 태안의 아픈 기억과 기적적으로 다시 찾은 태안의 바다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길 바란다.	
활용대상	유아 ~ 중·고등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교보재
소요시간	30분
제작비용	약 3,000원(컬러파일 등)



표지



유류로 뒤덮힌 바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다시 깨끗해진 바다를 찾는 사람들



유류피해 당시의 모습을 보여줌.



깨끗해진 태안의 바다를 보여줌.

운영방법

1. 태안의 아픈 기억인 2007년 유류피해사고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어려울 수 있는 태안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3.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연을 사랑할지를 이야기하고 약속한다.

향후방향

-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안의 해안생태계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동화책 모음을 만들 수 있다.

참고내용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불리는 ‘삼성-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했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되었다.

예인선단 2척이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된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쇠줄로 묶어 거제도도 예인하던 중에 한 척을 지탱하던 쇠줄이 끊어지면서 해상 크레인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세 차례 충돌했다. 충돌로 인해 유조선 탱크에 있던 1만2547kℓ의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1995년 ‘시프린스호 유조선 좌초 사건(호남해운 소속)’보다 유출된 기름이 2.5배나 많을 뿐 아니라 1997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한 3915건의 사고로 인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합친 1만234kℓ보다 많은 규모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는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특히 호미나 갈고리로 바닥을 뒤집거나 긁어서 그 속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는, 이른바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던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또한 원유 유출로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을 의미하는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의 굴, 김, 바지락 등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한국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2015. 11. 1.,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김찬원, 박성철)

주의사항

- 자칫 재미 위주로 진행하다 산만해질 수 있으니, 메시지 전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